

삽입음 ‘ㅇ’(/N/)의 음운론 교육

박 종 희 (군산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삽입음 ‘ㅇ’의 쓰임 |
| 2. 삽입음 ‘ㅇ’의 성격 | 5. 맺음말 |
| 3. ‘ㅇ’의 삽입 위치 | |

국문초록

훈민정음의 아음 ‘ㅇ’(/N/)은 의미의 정확한 전달과 조음의 편이를 위하여 모음 사이에서 삽입되었다. 다른 자음과 달리 특히 이 음이 삽입된 이유는 [설배성], [공명성], [모라성]과 같은 자질을 가졌기 때문이다. 선행 모음에 가장 충실한 ‘ㅇ’이 분할되어 모음충돌을 회피함으로써 조음의 편이를 추구한다. 그와 동시에 어두 음절의 모라가 증가되어 음성적 강화가 이루어지면 의미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ㅇ’은 어두 음절의 종성을 선호한다. 또한 비음은 후행음의 변별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 삽입이 이루어질 때, 주변음의 변별자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 설령 ‘ㅇ’이 삽입되어 주변 모음을 비음화할지라도 당시의 음운체계에서 모음과 비모음은 비변별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본래의 형태소 의미를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ㅇ’이 삽입음으로 기능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조음위치가 연구개(/ŋ/)로 상승되기 이전의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삽입 자음이 입력형 모음과 더불어 조음위치와 공명성을 공유해야 가장 충실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할이론에 의하면, 중세국어의 삽입자음은 목젓

비음 ‘ㅇ’(/ŋ/)이 가장 적합하다. 중세국어 설축 모음의 조음위치 자질은 [Dorsal, Pharyngeal]과 같이 이중적인 자질 명세를 가지므로, Ident-[Dorsal, Pharyngeal]과 Ident-[sonorant]를 준수하는 목젓 비음 /ŋ/이 최적의 삽입음으로 선택된 것이다. [설축] 자질이 소멸된 후에는 Ident-[Dorsal]만을 준수하는 연구개 비음 /ŋ/이 삽입된다.

주제어: 중세국어, 삽입음 ‘ㅇ’(/ŋ/), 모음충돌 회피, 설축모음, 목젓 비음, 연구개비음

1. 머리말

삽입음은 일반적으로 조음의 편이를 위해서, 그리고 표현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서 삽입된다. ‘너출>년출’, ‘가치>간치’, ‘더디->더지->던지-’, ‘ㄹ초->근초->곰초’ 등에서 파찰음 앞에 ‘ㄴ’이 삽입되는 현상은 이미 그 청각상이 뚜렷한 말일지라도 한층 더 명료하게 표현하려는 욕구에 의해 일어난 덧보탬으로 파악되었다(허용 1965/1985: 554). 이는 음보의 핵음절을 중음절로 만들어 강화시킨 것이다. 뒤에 오는 자음과 동일한 조음위치를 가지면서 모라성을 가진 것은 /ㄴ/이어서 가장 적절한 삽입음이 된다. 그런데 모음과 모음이 인접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어휘에 따라 산발적으로 ‘ㅇ’이 삽입되기도 한다. ‘나시>나이>낭이>냉이, 쇼아지>송아지’와 같은 예들에서 이런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후자의 경우도 넓은 의미의 분절음 삽입 현상으로 보고, ‘ㅇ’이 삽입되는 음성·음운론적 이유를 논의하고자 한다. 모음 사이에는 여러 자음이 삽입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만이 삽입되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이 음이 가졌던 설배성, 공명성, 모라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행 모음에 가장 충실한 ‘ㅇ’이 분할되어 모음 충들을 회피함과 동시에 어두 음절의 모라를 증가시켜 음성적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또한 ‘ㅇ’이 어두 음절의 종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삽입음이 첨가된 이후에도 본래의 단어 및 형태소가 지닌 형태·통사론적 자질들의 음운론적 표상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므로 아무 자음이나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려는 삽입음의 본래 기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표기법에서 어근 및 어간을 밝혀 적으려는 것의 의미의 전달을 충실하게 수행하려는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삽입음은 이러한 조건에 충실해야 한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ㅇ’에 대해 ‘舌根閉喉聲氣出鼻’라 기술하고 있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 조음되며 기류가 비강을 통하여 나오는 소리임을 말하고 있다. 혀뿌리가 인두벽에 협착되어 발생하는 일차적인 소리는 목젓음과 인두음이다. 혀뿌리가 인두의 위쪽 부분으로 협착되면 목젓음이 되고 약간 아래쪽으로 협착되면 인두음으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제자해의 이 기술은 연구개음보다는 목젓음과 인두음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의 아음 ‘ㅇ’은 연구개음 /ŋ/이 아니라 목젓 비음 /N/에 가깝다.

분할이론에서 삽입 분절음은 항상 입력형 분절음에 대응하며, 그럼으로써 충실성 제약들이 그들의 형식을 규정해 준다. 삽입 자음들은 그들이 분할해 나온 기저 분절음에 가능한 한 충실해질 것을 이 이론은 예측한다. 분할이론에서, ‘삽입 자음’은 분할된 입력형 분절음에 대응하는 음절 가장자리의 분절음을 지시한다. 삽입 분절음의 성질은 유표성 제약 및 그와 경쟁하는 규칙적인 입력형-출력형 충실성 제약에 의해 정해진다. 입력형 분절음을 분할하는 것은 IO-INTEGRITY(완전성)에 의해 벌점을 받는다(McCarthy & Prince, 1995; 1999). 그리하여 삽입 분절음은 이 제약에 의해 가능한 한 그들의 입력형에 유사해질 것을 요구 받는다.

삽입 자음이 입력형 모음과 더불어 조음위치와 공명성을 공유해야 가장 충실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할이론에 의하면, 중세국어의 삽입자음은 목젓

비음 ‘ㅇ’(/N/)이 된다. 중세국어 설축 모음의 조음위치 자질은 [Dorsal, Pharyngeal]과 같이 이중적인 명세를 가지므로 Ident-[Dorsal, Pharyngeal]과 Ident-[sonorant]를 준수하는 목젓 비음 /N/이 최적의 삽입음으로 선택된다. [설축] 자질이 소멸된 후에는 Ident-[Dorsal]을 준수하는 연구개 비음 /ŋ/이 삽입음이 될 것이다.

2. 삽입음 ‘ㅇ’의 성격

청각인상의 강화와 조음상의 편이를 위해, 모음 사이에서 특별히 비음 ‘ㅇ’이 삽입된 이유는 다른 폐쇄 자음과는 달리 비음은 후행음의 변별력을 크게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삽입이 이루어질 때 주변음의 변별 자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이다. 다른 폐쇄 자음이 삽입되면, 뒤에 오는 모음과 더불어 음절화하여 초성 자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특성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비음이 삽입될 경우에는 본래 형태소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비음 ‘ㅇ’이 삽입되어 주변 모음이 비음화 될지라도 당시의 음운체계에서 모음과 비모음은 비변별적인 관계에 있었으므로 본래의 형태소 의미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비음 중에서도 ‘ㅇ’이 선택된 이유는 중세 국어에서 ‘ㅇ’의 조음위치는 현대와 달리 상부 인두음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음위치상 변자음인 순음 ‘ㄱ’이나 중자음인 치경음 ‘ㄴ’과 달리 ‘ㅇ’은 상부 인두음인 목젓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비음보다 약한 음이어서 삽입음으로서 최적의 상태에 있었다. 비음을 포함한 순수 자음의 음운론적 강도에 있어 중자음보다 변자음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이들 중 ‘ㄱ’의 강도는 ‘ㄴ’보다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ㄱ’, ‘ㄴ’보다 ‘ㅇ’은 강도가 더욱 약하므로 삽입음으로 선택될 수 있었다. 상부 인두음(목젓음)이었던 ‘ㅇ’(/N/)이 연구개음 ‘ㅇ’(/ŋ/)으로 조음위치가 상승되어 강도가 큰 변자음이 된 것은 16세기 말엽 이후의 일로 보인다. 그러므

로 ‘ㅇ’이 삽입음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조음위치가 연구개음으로 상승되기 이전의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위해서는 아음 ‘ㅇ’의 당시 음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¹⁾

삽입음은 자질들이 완전히 결여된 음으로 가정되기도 한다(Archangeli 1988). 그러므로 삽입은 빈자리(empty position)에 관한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Hualde(1991)는 Basque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언어의 삽입음 [e]가 때때로 빈(empty) V로 표시될지라도 완전히 비명시된(unspecified) 모음으로 항상 해석되지는 않음을 제시했다. 삽입음은 자질들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견해가 지니는 또 다른 문제점은 몇몇 언어들이 두 개 이상의 삽입음을 가진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들을 구조적으로 변별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Hualde의 분석 방법과 관련된 다른 접근법은 한 언어의 삽입음은 구조가 완전히 결여된 것이 아니라, 최소 구조(least structure)를 가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Rose 1993). 이러한 견해는 Amharic어 및 Axininca어의 삽입음으로 행동하는 설정성 자음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설정성 자음은 다른 유형의 자음보다 최소 위치 구조(less place structure)를 가지기 때문에 삽입자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Rice(1995)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명시된 설정음은 주변마디(Peripheral node)를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순음 및 설배음(dorsals)보다 더 간단한 것으로 간주된다. 후두음의 경우, 기저상에서 후두음이 인두마디를 가질지라도 삽입된 후두음은 위치마디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Nisgha어 및 Tigre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후두음이 인두마디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삽입음으로 선택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²⁾ 인두마디를 가진 후두음은 다른 인두음 및 다른 유형의 자음들보다 여전히 더 간단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1) ‘ㅇ’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권병로 · 박종희(2015) 참조.

2) 위치마디가 결여된 후두자음, 특히 /ʔ/이 삽입자음으로 행동하는 예는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Ilokano어에서는 초성 요구조건(onset requirement)을 충족시키기 위해 삽입된다. 이는 후두음이 인두마디(Pharyngeal)에 속하는 언어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Modern Hebrew에서는 [h], Arabic어에서는 [ʔ], Tigre어에서는 [h]가 삽입 자음으로 행동한다.

(1)	/?/	/p/
	Root	Root
	Place	Place
	Pharyngeal	Oral
		Labial

후두음의 신분에 관한 수수께끼는 인두마디를 갖는지, 갖지 않는지 그들의 변이적 표상에 반영된다. 그리하여 후두음의 명세는 언어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으나, 본고에서는 Rose(1996)의 견해에 따라 후두음의 표상은 그 언어 목록에 다른 후음(gutturals)들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자 한다. 만일 인두음이나 목젖 계속음이 존재한다면, 후두음은 인두마디를 가진 것으로 명시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증 예들은 자질 [RTR]을 도입하여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목젖음과 인두음에는 [RTR]을 명기하고 후두음에는 이 자질을 명기하지 않는 것이다. [RTR]은 자음의 본질적인 자질이어서 기저상의 모음에는 명세되지 않는다(Goad 1991). 모음에 대한 [RTR]의 영향은 모음을 퇴행(retract)시켜 후설화되고 저설화된 다른 영역의 모음을 산출한다. 후두음의 이러한 변이적 표상은 서로 다른 언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종성 위치에서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 후두음이 인두마디를 가질 때는 종성 위치에서 기피되지만, 위치마디가 없을(placeless) 때에는 종성 위치에서 선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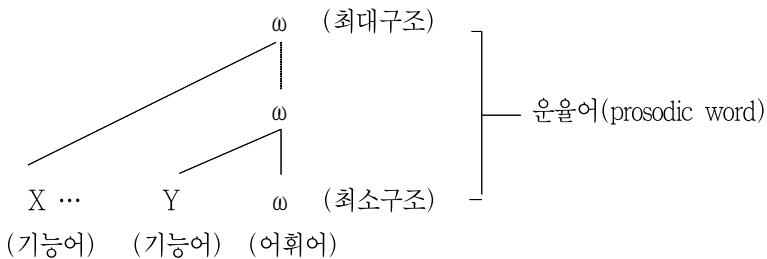
제자해의 아음 ‘ㅇ’은 인두마디를 갖는다. 그러나 자질 구조가 간단한 음이기 때문에 소운율어의 경계에 삽입되어도 본래 형태의 의미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다른 언어의 삽입음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질이 완전히 빈 C 자리가 아니어도 자질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삽입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선행 모음이 [RTR] 자질을 가질 경우(/·, ɔ, ɒ/)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o’이 삽입될 수 있었다. 목젓 비음 /N/(o)도 [RTR] 자질을 가지므로 삽입이 용이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삽입된 ‘o’은 재음절화하여 뒤에 오는 모음 음절의 초성 위치에 올 수 없었으므로, 양음절화 하여 결과적으로 ONSET 제약을 충족시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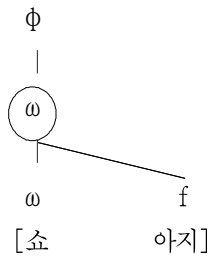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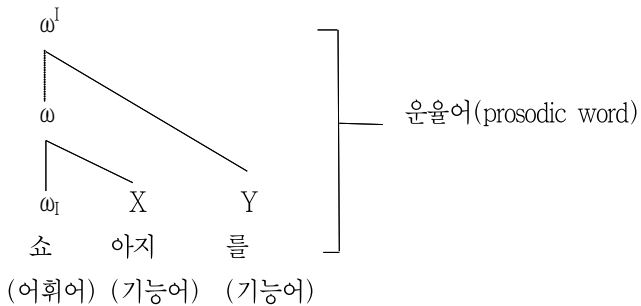
3. ‘o’의 삽입 위치

여기서는 소운율어의 개념을 살펴보고, 왜 그 경계에서 ‘o’이 삽입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소운율어의 개념은 Ito and Mester(2009: 242)에서 제시되었는데, 그들은 이전의 운율구조를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영어의 기능어(function words)들은 첨가 구조를 이루는데, 그 뒤에 어휘적 단어(lexical words)가 위치하는 구조이다.

(2) 영어의 확장된 운율어 구조



(3) 국어의 확장된 운율어 구조



그들은 소운율어를 입증하기 위해 [r]이 삽입되는 현상을 예로 들었다. 영어에서 긴장된 전설고모음([i:] 및 이중모음화한 전설모음([eɪ], 후설모음([u:], [oɔ]), 그리고 이중모음([aɪ], [oɪ], [aɔ])인 경우에 있어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활음적 요소 [j], [w]가 삽입된다(see Ann[si:jæn], know Ann[nɔ:wæn] 등). 그리고 이들 모음 이외의 단어말 모음들 즉, [ɑ:, ɔ:, ə] 모음은 이에 대응되는 활음 요소가 없어 이 전이적 활음과 가장 유사한 [ɹ]이 삽입되어 모음충돌을 피한다. 이러한 설명은 저모음과 schwa에 대해 가장 호소력이 있는 설명인데, [ɹ]이 조음될 때는 종종 인두협착(pharyngeal constriction)이 수반된다고 한다(Gnanadesikan 1997, Gick 2003)³⁾. 여기에서 삽입음 [r]

3) Uffmann(2005)은 삽입음 r이 이 모음들 뒤에서만 나타나고 [ɔ:] 뒤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방언이 있음을 관찰했다(Wells 1991 참조).

이 선행 모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 (4) *Shah of Persia* *spa and music*
 [ʃɑ:ɾəf pə:ʒə] [spa:ɾænd mju:zɪk]
- vanilla ice cream* *saw Ann*
 [vənɪlə ɾajskɪɪjm] [sɔ:ɾæn]

이런 면에서 볼 때, [r]-삽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i)분절음의 뿌리마디만이 삽입된 후, (ii)선행 모음의 위치 자질들이 비어 있는 뿌리마디를 채우기 위해 보충된다. 그러므로 어간(또는 형태론적 단어)의 오른쪽 끝을 운율 구성성분의 오른쪽 끝에 정렬시키는 제약은 이 모음 자질들을 종성(coda)에 고정시켜 양음절성을 드러내게 한다.

따라서 DEP(ω -init)와 DEP은 각각 DEP-ROOT(ω -init)과 DEP-Root로 대체되어야 한다. 전자는 모든 위치 자질들을 보유한 완전한 분절음의 삽입을 금지하는 제약이 아니라, 분절음의 뿌리마디만을 삽입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이다. (5)의 선택된 후보자는 ‘1:다수’의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하위 등급의 제약 INTEGRITY를 위배한다.

(5) *Wanda ate*

/wandə ert/	ONSET(ω r)	DEP-ROOT(ω -init)
┐. [ω r>wandə] [ω rert]	*!	
┐┐. [ω r>wandə] [ω rert]		*
 [place]		

후보형 *[wandə] [jert] 또는 *[wandə] [wert]는 높은 등급의 제약 DEP-place을 위배한다. 이는 (6)과 같이 휴지 다음에서 /ɛd/→*[red]가 되는

것과 같다.

(6) *Ed*

/εd/	DEP-place	ONSET(ω _I)	DEP-ROOT(ω-init)
☞ [ω _I εd]		*!	
[ω _I rεd]	*!		*

‘송아지’를 예로 들어, 소운울어 경계에서 ‘ㅇ’이 삽입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평가표는 다음과 같다.

(7)

/쇼-아지/	ONSET	* _o [N	Align-R (어근, ω _I)	DEP-ROOT (ω _I -final)	DEP- place	DEP- ROOT
☞ ㄱ. 송-아지 (양음절성 ㅇ)			*	*	*	*
ㄴ. 쇼-아지	*!					
ㄷ. 쇼-아지		*!			*	*
ㄹ. 송-아지	*!		*	*	*	*

후보형 (7ㄴ),(7ㄷ)은 ONSET에 의해 제외되고, 후보형 (7ㄷ)은 *_o[N 제약에 의해 제외된다. 후보형 (7ㄱ)은 Align-R(어근, ω_I)과 DEP-ROOT(ω_I-final)을 위배할지라도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음절초에 비음 ‘ㅇ’이 올 수 없는 상위 등급의 제약이 존재함에도 ‘쇼아지’와 같은 표기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이 표기형이 사실상 ‘ㅇ’의 양음절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송아지’로 표기되기도 하고 ‘쇼아지’로도 표기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서예’(澌), ‘러울’(獺) 등의 ‘ㅇ’는 음절초 위치에 국한되어 발음된 것이 아니라, 모음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양음절성이 표기에 반영된 것이다. ‘ㅇ’이 전자에서는 선행 음절의 종성(‘성예’)으로, 후자는 후행 음절의 초성(‘너굴<러울’)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ㅇ’이 양음절

성을 지녔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위 제약표에 제시된 제약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ㅇ’의 삽입 위치가 결정된다.

어근 및 어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들로 이루어진 소운울어의 경계에서 ‘ㅇ’의 삽입이 이루어진다. 어근 및 어간의 형태소 경계를 음운론적으로 들어냄으로써 그들의 형태·통사론적인 자질들을 그대로 보존하여 의미 전달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기능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추상적인 형태소 표상 및 그 경계를 음운론 영역에서 소운울어로 구체화시킨 다음 그 경계를 ‘ㅇ’으로 들어냄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전달의 목적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의 삽입이론과 달리, 분할이론(splitting theory)에 의해서도 중세국어의 ‘ㅇ’(/N/) 삽입을 설명할 수 있다. Staroverov(2014)가 제안한 분할이론의 기본적인 제약들은 다음 (8)-(12)와 같다. 여기에는 McCarthy & Prince(1995, 1999)의 충실성 제약과 자음의 삽입을 유발하는 ONSET 제약(Prince & Smolensky, 2004)이 포함된다.

충실성 제약 INTEGRITY는 분할에 의해 위배된다(McCarthy & Prince, 1995: 124).

(8) INTEGRITY(완전성) : 출력형에 복수 대응소를 가진 모든 입력형 분절음에 위배 표시를 배정한다.

삽입을 유발하는 제약들은 불충실한 사상에 단지 벌칙을 가하는 충실성 제약과 차이를 보인다. 즉 분할 사상은 INTEGRITY를 위배하게 된다(McCarthy & Prince, 1995, 1999).

INTEGRITY는 출력형에 나타나는 입력형의 분할된 분절음에 위배 표시를 한다. 여기서 분할은 단지 2분법적인 것으로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분할은 입력형 분절음으로부터 나온 둘 이상의 출력형 분절음을 산출할 수 없다. 즉, /a₁/ → [β₁ɣ₁δ₁]은 불가하다. 결과적으로 분할 작용은 모든 입력형 분절음에 단지 한 번만 적용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2분 분할은 분할의 각 경우에 한 번만 위배하는 INTEGRITY에 대하여 입력형 기반의 정의를 인정한다. 또한 2분 분할은 출력형에 첨가될 수 있는 자음의 수에 대해 상한선을 둔다. 따라서 DEP-기반 이론에서는 순수 삽입의 경우가 출현 가능할지라도 분할이론에서 /a₁/ → [t₁w₁a₁]과 같은 사상은 불가능하다. 분할 작용은 또한 국부적이다. 다시 말하면, 입력형 /α₁β₂/에서 /α/의 대응소가 /β/의 대응소 주변에 발생하는 [γ₁& ε₁]는 산출할 수 없다. 이러한 요구 조건은 자음 삽입을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

여러 언어에서, 분할은 항상 핵음으로부터 가장자리 음(항상 뒤에 오는 음절의 초성)으로 작용한다. 표면상의 연속체 V₁V₂에서 삽입의 결과는 항상 V₁에 의해 결정된다(Keer, 1996). 이런 패턴은 음소배열 제약 *ji/wu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지시적 분석은 위치적 충실성 제약에 의존한다.

- (9) Tautosyllabic Integrity(동음절적 완전성) : 입력형의 분절음이 동일 음절 내에서 복수의 출력형 대응소를 가지면 위배 표시를 배정한다.

예를 들면, 이 제약은 /a₁i₂/→[a₁ . j₂]와 같은 사상에서 위배된다. 그러나 /i₁a₂/→[i₁ . j₁a₂]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

자질의 변화도 때때로 분할의 결과에 적용되어, 삽입자음은 자신의 입력형 모음을 완전히 복사하지 못한다. 이러한 자질의 변화는 McCarthy & Prince(1995)의 IDENT-F 제약에 의해 규정된다. 위 평가표의 IDENT-TP는 혀뭍 위치 자질 [high], [low], [back], [round]를 충칭한 것이다.

- (10) IDENT-F : 입력형의 분절음을 α라 하고 출력형에 있는 α의 대응소를 β라 하자. 만일 α가 [ɣF]이고 β가 [ɣF]가 아니면, 위배 표시를 배정한다.

중세국어의 ‘ㅇ’(/N/) 삽입은 운율적인 정형 제약 즉, ONSET 제약에 의

해 동기화 된다.

(11) ONSET : 초성 자음으로 시작되지 않은 음절에 위배 표시를 배정한다.(Broselow, 1982; Ito, 1986, 1989)

(12) *ji/wu : 모든 자질이 동일한 두 분절음이 ‘가장자리-핵음’의 연속체로 나타나면 위배 표시를 배정한다.

이 제약에 의해, 고모음들의 연속체는 항상 첫 번째 모음을 분할하여 모음충돌을 해결할 것이다. 예를 들면 /pu:-ɪ/는 *[pu:ji]보다는 [pu:wɪ]로 표면상에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pu:ji]는 *ji/wu를 위배하기 때문이다. 또한 *ji/wu의 단순한 존재로 인해 고모음들의 연속체에서 첫 번째 고모음을 분할하는 것이 두 번째 고모음을 분할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을 예측해 준다 (Staroverov, 2014).

분할이론에서 삼입자음은 항상 그들의 입력형 모음에 가능한 한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몇몇 충실한 선택이 유표성 제약에 의해 봉쇄된다. 그러한 경우 분할하는 입력형 모음은 유표성 제약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몇몇 자질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삼입자음의 성질을 결정하는데 부가적인 유표성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제안된 분석은 수정 조음자 이론(RAT)의 가정에 의존한다(Halle et al., 2000 등). 즉, 모든 모음과 모음성 활음은 Dorsal place(또는 능동적인 조음자)로 명세되는데, 이는 Flynn(2004)에 의해 모음적 설배성(vocalic dorsality)이라 명명되었다. 이를 약간 수정하면, 중세국어의 설축 모음들은 이중적인 명세 [Dorsal, Pharyngeal]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삼입 자음들은 모음과 더불어 Dorsal place 명세를 공유한다. 더욱이 RAT는 완전명세를 가정하므로, 모음들은 모두 [+voice]로 명세 된다. 중세국어에서 /N/('o')이 삼입 자음으로 선택된 이유는 (13a)처럼 IDENT-[Dorsal, Pharyngeal] 및 IDENT-[sonorant]를 위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제약 평가표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13)

/sjo ₁ -a ₂ ʃi/	T- INT	*ji/ wu	ID- [Dor, Phar]	ID- [son]	ONS	ID- [co ns]	ID- TP
a. sjo ₁ N ₁ a ₂ ʃi						*	*
b. sjo ₁ Q ₁ a ₂ ʃi				*!		*	*
c. sjo ₁ g ₁ a ₂ ʃi			*!	*		*	*
d. sjo ₁ ŋ ₁ a ₂ ʃi			*!			*	*
e. sjo ₁ j ₁ a ₂ ʃf i			*!				*
f. sjo ₁ w ₁ a ₂ ʃi			*!				
g. sjo ₁ a ₂ ʃf					*!		

4. 삽입음 ‘ㅇ’의 쓰임

소운울어 경계의 모음층들을 회피하여 조음의 편이를 도모하고 형태소를 보존하기 위해 삽입된 ‘ㅇ’의 예는 다음 (14)와 같다. 여기서의 ‘이’는 종래 상대존대 보조어간으로 알려진 것인데, 여기서는 이를 인정치 않고 ‘ㅇ’을 제외한 ‘ㅣ’만을 상대존대 보조어간으로 인정하고자 한다. ‘ㅇ’은 소운울어 경계에 삽입된 자음인데 양음절성을 가지므로 음절초 위치에 표기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수한 음절초 자음이 아닌 것으로서 비음 ‘ㅇ’이 음절초에 존재하지 않는 국어의 일반적인 제약을 위배하지 않는다.

(14)모음 사이 삽입음 ‘ㅇ’의 양음절성(이승녕 1945/1988: 152 예 생략)

①이이 썩, ② 오이 썩, ③ 으이 썩, ④ 아이 썩, ⑤기타 예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흐녕다, 햅댕다’는 기존의 설명과 다르게 해석된다. 고영근(1997)에서는 상대높임법 선어말어미의 이형태로 ‘-이-~-잇-, -ㅇ-~-ㅣ-’를 상정했다. 그러나 김유범(2008: 209)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한다. 그 하나는 실현된 이형태에 대한 관찰의 정확성 문제이다. 상대높임법 선어말어미의 이형태가 햅야썩체의 평서형에서 ‘ㅇ’(‘ㅣ’모음 뒤)과 ‘ㅣㅇ’(그 밖의 모음 뒤)이라고 설명한 점에 대해서, ‘흐녕다, 햅댕다’에서 상대높임법 선어말어미의 이형태가 ‘ㅣㅇ’으로 파악된 것이 올바른 관찰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하여 김유범(2008)은 ‘흐녕다, 햅댕다’의 형태론적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5)ㄱ. 햅녕다 : 햅- + -ㄴ- + -오- + ㅣ + -ㅇ- + -다

cf. 護彌 닐오더 그리 아니라 부터와 중과를 請햅스보려 햅녕다<석보상절 6:16b>

ㄴ. 햅댕다 : 햅- + -더- + -오- + ㅣ + -ㅇ- + -다

cf. 내 그런 ㅼ들 몰라 햅댕다<석보상절 24:32a>

이때 밑줄 친 ‘-오-+ㅣ+-ㅅ-’부분은 두 선어말어미 [-오-]와 [-이-]가 결합된 것으로 두 경우 모두 선어말어미 ‘-오-’ 뒤에 활음 ‘ㅣ’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라고 보기 어렵고 음의 동화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요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때의 동화 현상은 선어말어미 ‘-이-’의 모음 ‘이’가 동화주가 된 이른바 ‘이’모음 역행동화로 보아, 이 현상에 의해 두 선어말어미 ‘-오-’와 ‘-이-’의 결합은 ‘오이→외이’의 과정을 거쳐 ‘이’의 모음이 탈락된 ‘외’으로까지 변화된 것으로 김유범(2008)은 보고 있다.

김유범(2008)은 ‘ㅎ녕다, ㅎ댕다’의 존재를 고려하여, 상대높임법 선어말어미를 두 개의 형태소 ‘이/ㅅ’로 나누어 보기보다는 공시적으로 ‘이→ㅅ’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을 보다 나은 설명 방법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이-’와 ‘-ㅅ-’은 하나의 형태소이고 ‘-이-’로부터의 모음 탈락, 즉 ‘이→ㅅ’의 과정이 ㅎ쇼서체가 ㅎ야씨체로 바뀌는 당시의 실제적인 구현 방법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형태의 단축이 상대높임의 등급 저하를 가져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결국 ㅎ야씨체의 평서형 ‘ㅎ녕다, ㅎ댕다’에서 실현된 상대높임법 선어말어미의 이형태는 ‘ㅣ’가 아니라 ‘-이-’에서 모음 ‘이’가 탈락된 ‘-ㅅ-’으로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관찰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의 입장은 (16)과 같이, ‘이’의 ‘ㅅ’을 소운율어 경계에 삽입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ㅅ’은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공시적으로 ‘이’에서 ‘ㅣ’가 탈락되어 ‘ㅅ’가 남을지라도 이것은 본래 양음절 성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ㅣ’탈락 후에는 중성 위치에 나타나게 된다.

- (16) 가. ㅎ녕다 : ㅎ- + -ㄴ- + -외- + ㅅ + ㅣ + -다
 나. ㅎ댕다 : ㅎ- + -ㄷ- + -외- + ㅅ + ㅣ + -다

‘ㅣ’에 역행 동화되어 나타난 ‘오→외’의 부음 ‘j’가 상대높임의 문법적 기능을 전이 받은 후 동화주 ‘ㅣ’가 탈락된 것이 ‘ㅎ녕다’ ‘ㅎ댕다’형으로 보고

자 한다. 이는 상대높임의 등급이 낮은 ‘하야씨’체에서만 나타나므로, 이로 인해 상대높임의 등급이 높은 ‘하쇼씨’체와 구별을 이룬다.

이외에도 ‘ㅇ’을 삽입음으로 보면, ㅎ쇼씨체와 ㅎ야씨체의 평서문과 의문형에서 각각 ‘-이-~~-잇-, -ㅇ-~~- | ㅇ-~~-ㅅ-’로 교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다. 여기에 보이는 ‘ㅅ’은 의문형어미 ‘ㅅ가/ㅅ고’의 ‘ㅅ’이므로 ‘ㅇ’과 ‘ㅅ’을 제외하면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ㅣ’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의문형어미로 불연속형태 ‘-니...가’를 설정하고 여기에 상대높임법 선어말어미 ‘-잇-’과 ‘-ㅅ-’이 개재되는 것으로 볼 필요도 없어진다.

다음으로 ‘이/그/더어기’를 살펴보자.

(17)ㄱ. 덩어기와 이어기 소식이 업도다 : 去往彼此無消息(두해초 11:16)

ㄴ. 모다 나미 實로 잉어기로다 : 宗生實於此(두해초 16:66)

(17)은 삽입음 ‘ㅇ’의 양음절성이 표기에 반영된 것을 보여준다. ‘Onset」 *o[ㅇ]의 등급을 이룰 때는 ‘이어기’로, 그리고 ‘*o[ㅇ]」Onset’의 등급을 이룰 때는 ‘잉어기’로 표기에 반영된다. 그러므로 이들 두 표기가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Onset : *o[ㅇ]과 같이 제약의 등급이 같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어휘에 대한 기왕의 분석은 이들 이표기 중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이어기’에 중점을 둔 분석은 이승녕(1956)의 뒤를 이은 대부분의 연구가 이에 속한다. 그리고 ‘잉어기’에 중점을 둔 분석은 김선기(1975), 조재형(2010) 등을 들 수 있다.⁴⁾

이승녕(1956: 94~96)에서는 제주방언인 (18ㄱ)과 후기중세국어 자료인 (18ㄴ)을 근거로 ‘기기 : 어기’를 설정하였다. 또한 ‘억, 약’은 체언 밑에 붙는 접미사로서 아무런 뜻이 없다고 했다.

(18)ㄱ. 이거기 : 此處, 此處에

그거기 : 其處, 其處에

4) 선행연구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재형(2010) 참조.

저거긔 : 彼處, 彼處에

나. 낮게 : 晝에(월석 7:31)

부텃게 가믈 : 往至佛所(법화 7:133)

한계 : 於衆에(법화 6:67)

한편, 이승녕(1956) 이후의 논의에서는 ‘이/더/그+억+-의’의 형태로 분석하고, 이 중에서 ‘억’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억’을 장소 명사로 파악하는 논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이 이들 어휘의 형태소 분석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19) 이/그/더어긔 < 이/그/더 + 억 + -의

이들 논의의 공통점은 첫째, ‘억’을 장소 명사로 파악하며, 둘째, 대명사 ‘이/그/더’와 부사격조사 ‘-의’를 추출한다는 점이다. 이들 연구가 ‘이/그/더어긔’에서 ‘억’을 추출한 근거는 ‘이/그/더’와 ‘-의’가 15세기에 생산적으로 쓰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19)에서 볼 수 있듯이 ‘이/그/더어긔’에서 ‘이/그/더’와 ‘-의’를 제외하면 ‘억’이 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조재형(2010:105)에서는 두시언해 초간본에서는 ‘是中, 於此間, 於~此, 於~是’를 ‘잉어긔’로 언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시하였다.

(20) 이/그/더어긔 < 잉/궁/덩 + -어긔

16세기 이후부터는 ‘잉/궁/덩’의 용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승녕(1956)의 자료를 고려하여 ‘(*억/극/적) > 잉/궁/덩 > 이/그/더’의 변천 과정을 추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음절말 ‘ㅇ’이 탈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소운울어 경계에서 Onset 제약과 Dep-/ㅇ/ 제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ㅇ’

이 삽입되는 것으로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ㅇ’은 자질도형에서 Pharyngeal 마디만을 가져 가장 단순한 음이므로 삽입에 가장 적절한 음이다. 삽입이 되더라도 기존의 형태소를 크게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삽입된 ‘ㅇ’은 양음절성을 가지므로 선행 음절의 종성에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후행 음절의 초성에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긋’은 ‘억(장소명사)+의’가 문법화를 경험하여 접미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접미사가 지시대명사 ‘이/그/더’에 연결될 때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ㅇ’이 삽입되어 양음절성을 띠게 된다. “오직 이에 魔事를 불기샤문(능해 9:64L)”에서 밑줄 친 ‘이에’는 Onset≫Dep-/ㅇ/의 제약등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축소 접미사로 알려진 ‘-아지’가 결합된 ‘송아지, 뭉아지, 강아지’에 나오는 ‘ㅇ’을 살펴보자. 이승녕(1961)에서는 ‘-양/영/ㅇ’을 명사 사이에 나타나는 관형사형 접미사의 일종으로 보았다. 이현희(1999)에서도 ‘비가리’와 ‘병아리’, ‘고내기’와 ‘고양이’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ㅇ’을 접미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송아지, 뭉아지, 강아지’는 각각의 어기에 접미사 ‘-ㅇ’과 ‘-아지’가 결합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서는 접미사 ‘-ㅇ’의 기능을 명확하게 알 수 없고, 또한 접미사가 연속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못하며, *송, *뭉, *강(가형, 가영)과 같은 단어가 전혀 문중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이현희 1999: 130). 소운울어 경계에서 Onset≫Dep-/ㅇ/의 제약등급이 작용하여 ‘ㅇ’이 삽입된 것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동물 이름과 결합하는 ‘-가리’와 ‘-아리’의 형성을 살펴보자. ‘鷄’의 새끼를 나타내는 말이 경북 방언에서는 ‘비가리’로 나타나고, 다른 방언에서는 대부분 ‘병아리’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리’와 ‘-아리’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때 ‘-아리’의 ‘ㅇ’은 ‘송아지, 뭉아지, 강아지’의 ‘ㅇ’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아리’의 ‘ㅇ’은 소운울어 경계에서 삽입된 음이 아니라, 기저형의 ‘ㄱ’과 대응을 이루어 교체된 음인 것이다.

이승녕(1961:13-166)에서는 ‘-ㅇ’을 접미사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

지 주목되는 점은 ‘ㄱ(g)>ㅇ(ŋ)’의 변화 가능성이다.

- (21) ㄱ. 손바당, 손바닥
 ㄴ. 두덩, 두덕
 ㄷ. 배랑, 배락
 ㄹ. 꼬덕이, 꼬덩이

이승녕(1961)에서는 이들 예를 통해 국어에서 접미사 ‘-ㄱ’과 ‘-ㅇ’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ㄱ(g)>ㅇ(ŋ)’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예들의 ‘ㅇ’을 접미사나 또는 삽입음으로 보지 않고 기저형의 ‘ㄱ’(/q/)이 약화된 ‘ㅇ’(/ŋ/)으로 보고자 한다. 연구개음 ‘ㄱ(g)>ㅇ(ŋ)’의 약화보다 인두음 부류에 속하는 목젓음 ‘ㄱ(q)>ㅇ(N)’의 약화가 더 자연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예들은 ‘송아지, 뭉아지, 강아지’의 삽입음 ‘ㅇ’(/ŋ/)과 기능상의 차이를 보인다. 또한 ‘貓’의 의미로 쓰이는 ‘고내기’(곤+악+이)와 ‘고양이’(고이+양+이)에서 분석되는 ‘-아기’와 ‘-양이’의 관계도 동일하게 설명된다. 일찍이 최학근(1968)에서도 ‘-아기>-양이’의 관계로 설명한 바 있다.

다음으로, ‘냉이’(薺菜)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자. 여기에서도 ‘ㅇ’이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냉이’의 최고형이 ‘나시’임은 잘 알려져 있는데(薺 나시 제<훈몽상:7ㄴ>), 이는 ‘낱’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나시’는 근대국어에 이르러 ‘ㄷ’이 탈락된 ‘나이’로 변한다(薺菜 나이 <동의보2:30ㄴ>). 모음충돌을 피하고 2음절 어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운율어 경계에 ‘ㅇ’(/ŋ/)이 삽입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2) 낱-이 > 나시 > 나이 > 낭이(ㅇ삽입) > 냉이(움라우트) > 냉이

이에 대해서 신중진(2007:242)에서는 ‘낭이’의 어형변화 과정을 ‘나시’와 연결시키지 않고 다음과 같이 ‘나히’에 근원을 두었다.

(23) 나히 > 낭히 > 낭이 > 냉이

왜냐하면 ‘ㅎ’을 선행하는 음절말에 ‘ㅇ’이 첨가되거나, ‘ㅎ’이 음절경계를 넘나들면서 ‘ㅇ’으로 바뀌는 것은 국어 음운사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종이’는 ‘조히...>종히...>종회>...>종이>정이(<경기><전남><충남>[연기]<황해>)’의 통시적 어형변화와 같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ㅎ’을 선행하는 음절말에 ‘ㅇ’이 첨가되는 이유와 ‘ㅎ’이 음절경계를 넘나들면서 ‘ㅇ’으로 바뀌는 음성음운론적 동기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나히’형이 근대국어에 출현하여 중세국어 이전에서 문중되지 않는 점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냉이’의 어형변화는 이미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바와 같이 17세기 형태인 ‘나히’는 모음 연속을 피하기 위하여 ‘ㅎ’이 첨가된 것이고, 18세기에 나타나는 ‘낭히’는 ‘낭이’의 제1음절과 ‘나히’의 제2음절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일종의 혼효형으로 보는 편이 현재로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어근 및 어간의 형태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소운울어의 경계에 ‘ㅇ’이 삽입된다. 어근 및 어간의 형태소 경계를 운율적으로 들어냄으로써, 그들의 형태·통사론적인 자질들을 원형대로 보존하여 의미 전달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기능적인 목적을 가진다. 추상적인 형태소 표상 및 그 경계를 운율어 영역에서 소운율어로 구체화시킨 다음, 그 경계에 ‘ㅇ’을 삽입시켜 효율적인 의사전달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높임법 ‘이’의 ‘ㅇ’을 소운율어 경계에 삽입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면, ‘ㅇ’은 종전의 견해처럼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공시적으로 ‘이’에서 ‘ㅣ’가 탈락되어 ‘ㅇ’이 남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본래

양음절성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ㅣ’탈락 후에는 종성 위치에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서, ‘ㅎ녕다’ ‘ㅎ댕다’형은 ‘ㅣ’에 역행 동화되어 나타난 ‘오→외’의 부음 /j/가 상대높임의 문법적 기능을 전이 받은 후, 동화주 ‘ㅣ’가 탈락된 것이다. 이는 상대높임의 등급이 낮은 ‘하야씨’체에서만 나타나므로, 이로 인해 상대높임의 등급이 높은 ‘하쇼씨’체와 구별을 이룬다.

소운울어 경계에서 TAUTO-INTEG, *ji/wu, ID-[Dor, Phar], ID-[son], ONSET, ID-[cons], ID-TP, INTEGRITY 제약의 상호작용에 의해 ‘ㅇ’(/N/)이 삽입되는 것으로 보면, ‘이어기, 그어기, 더어기’에 대해 제기된 여러 문제들이 해소된다. 삽입된 ‘ㅇ’은 양음절성을 가지므로 선행 음절의 종성에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후행 음절의 초성에 표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기’는 ‘억(장소명사)+의’가 문법화를 경험하여 접미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접미사가 지시대명사 ‘이/그/더’에 연결될 때 모음충돌을 피하기 위해 ‘ㅇ’이 삽입되어 양음절성을 띠게 된다.

삽입 자음은 입력형 모음과 더불어 조음위치와 공명성을 공유한다는 분할이론의 가정 하에서, 중세국어의 목젓 비음 ‘ㅇ’(/N/)의 삽입을 설명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모음들은 조음위치 자질 [Dorsal]을 가진다. 더욱이 중세국어의 설측 모음들은 [Dorsal, Pharyngeal]과 같이 이중적인 명세로 표시된다. 그리하여 이 모음에 가장 충실한 ‘ㅇ’(/N/)이 삽입음으로 분할되어 나타난다. RAT와 같은 완전명세 자질이론에서, 모음들은 [+sonorant] 명세를 갖는데 비록 이러한 명세가 비대립적일지라도 다른 자질 명세와 마찬가지로 IDENT 제약들의 목표가 된다.

참고문헌

- 강신항, 2010, 훈민정음 창제와 연구사, 도서출판 경진.
- 권병로 · 박종희, 2015, 훈민정음의 이체자 ‘ㅇ’ 음가, 국어문학 58, 5-27.
- 김규철, 1975, 훈민정음연구, 육군사관학교 논문집 13, 91-101.
- 김석득, 1974, 없어진 글자의 상고, 나라사랑 14, 외솔회, 1-25.
- 김선기, 1975, ‘ㅇ, 궁, 땡’ - 지시대명사의 새 인식, 명대논문집 8, 9-22.
- 김수현, 2011, 방언에 나타나는 모음 간 ‘ㅇ/ŋ’ 삽입의 원인, 방언학 14, 5-38.
- 김영만, 1987, 훈민정음 자형의 원형과 생성체계 연구, 장태진박사회갑기념 국어국문학논총, 삼영사, 43-70.
- 김유범, 2008, 이형태 교체의 조건과 중세국어 이형태 교체의 몇 문제,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1-222.
- 김유범, 2008, ‘ㄱ’탈락 현상의 소멸에 관한 고찰 - 16세기 이후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 우리말연구 23집, 우리말연구학회, 35-55.
- 김주필, 2001, ㅁ 의 [순음성] 관련 현상과 ㅁ로의 약화, 국어학 38, 국어학회, 27-54.
- 김형규, 1947, ㅇ ㅎ 음고, 조선교육 2-3집, 18-22.
- 손평호, 2002, 중세 국어 ‘이(그, 더)어기’의 짜임과 범주, 경남어문논집 제12집, 59-86.
- 신중진, 2007, ‘냉이[薺菜]’의 어원과 방언분화 분석, 우리말연구 27, 우리말연구학회, 239-262.
- 이승녕, 1945, 국어의 Hiatus와 자음 발달에 대하여, 이승녕 국어학선집(음운편 I), 1988, 민음사, 133-163.
- 이승녕, 1956, 접미사 -k(g), -ŋ에 대하여, 논문집(서울대) 4, 79-200.
- 이현희, 1999, 축소 접미사에 대한 연구, 국어학 34, 국어학회, 109-141.
- 정광, 2005, 훈민정음의 사람들, 162, 제이앤씨.
- 조재형(2010), ‘이어기, 그어기, 더어기’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38.1, 어문

연구학회, 103-129.

Abigail, Cohn C. 1993, Nasalization in English: phonology or phonetics, *Phonology* 10. 43-81.

Broselow, E. 1982. On predicting the interaction of stress and epenthesis. *Glossa* 16(2), 115 - 132.

Flynn, D. 2004. Vocalic dorsality in Revised Articulator Theory. Ms, University of Calgary.

Halle, M., Vaux, B. & Wolfe, A. 2000. On Feature Spreading and the Representation of Place of Articulation. *Linguistic Inquiry* 31(3), 387 - 444.

Hetzron R. 1969. Two notes on Semitic laryngeals in East Gura, *Phonetica* 19: 69-81.

Itô, J. 1986. Syllable theory in prosodic phonology. PhD dissertation, UMass Amherst.

Itô, J. 1989. A prosodic theory of epenthesis. *NLLT* 7(2), 217 - 259.

Ito, J. and Mester, A. 2009. The onset of the prosodic word, In *Phonological Argumentation: Essays on Evidence and Motivation*, Steve Parker(ed.), London: Equinox, 227-260.

McCarthy, J. J. & Prince, A. 1995. Faithfulness and Reduplicative Identity. Ms, UMass Amherst and Rutgers University.

McCarthy, J. J. & Prince, A. 1999. Faithfulness and identity in Prosodic Morphology. In: Kager, R., van der Hulst, H., & Zonneveld, W. (Eds) *Prosody-morphology interface*. Cambridge: CUP.

Staroverov, P. 2014. Splitting theory and consonant epenthesis, PhD. dissertatio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ROA #1230

Zawaydeh, Bushra Adnan. 2003. The interaction of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gutturals, *Phonetic Interpretation, Papers in Laboratory Phonology V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79-292.

【Abstracts】

Phonological Education about the ‘ㅇ’(/N/)-epenthesis

Park Jong-hee

A certain segment was often inserted in order to increase the easiness of articulation and the preservation of morphemes. In MK, the uvular ‘ㅇ’(/N/) was used as an epenthesis because uvular nasal did not damage the distinctness of the surrounding segments. Unlike the other consonants, the weakest /N/ was adequate to insert. Even if the inserted /N/ occurred the nasalization of segments in this neighborhood, it did not disrupt the original meanings of morphemes because the oral vowel was contrastively not distinguished from the nasal vowel in the MK vowel system. Therefore the uvular ‘ㅇ’(/N/) could be inserted as an epenthesis only before rising of the place of articulation diachronically from the uvular to the soft palate.

Key words : Middle Korean ‘ㅇ’, epenthesis, hiatus, retracted tongue root vowel, uvular nasal, velar nasal

이 논문은 2017년 2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2월 27일에 심사 완료 되어 2017년 2월 2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